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집필인	이강희
편집인	이강희
인쇄인	김영수

외대신문사 (☎902-7128, 901-4151)
외대학보 (☎902-7048, 901-4152)
130-791 서울시 용산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토인면 황산리 489

제575호 1992년 3월 24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주간)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253호

1

우리의 분노로
이제
해방의 아침을
맞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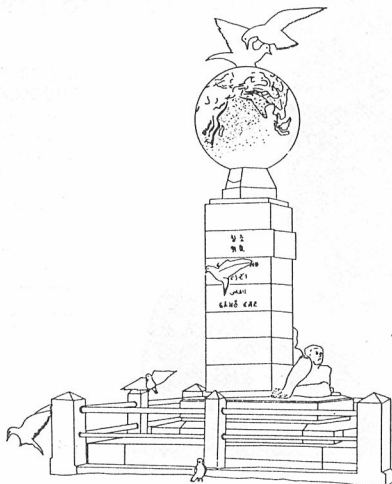
(제작:강인숙 본보편집장)

진리 · 평화 · 창조

다양한 학문을 탐구하는 外大人

교육 이념

진리
평화
창조



한국의국어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학생 각 개인의 개성 발달과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장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이 이념을 구현하고자 인문, 사회 및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교양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본 대학교의 특색점인 외국어를 토대로 각각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교수·연구함으로써 국제 문화교류 및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설

대학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또 동서고금을 통하여 대학은 그 사회를 반영해주는 거울이었고, 그 사회의 앞날을 예측해 주는 '바로메터'의 하나였다.

대학이 병들어 있고 전제하에 그 사회는 안정을 누리고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대학과 대학생이 병들어있고 그 사회는 구질질을 잃은 채 방황한 상태에서 나침반을 잃은 채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았던 것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사회의 부자한 행인들이 도리어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이 아닌가?

대학의 교수, 그들이 임하고 있는 연구실의 창문에 밝은 빛이 들어오지 않고, 대학의 도서관이 각종의 전공 분야 '저널'들과 신간서적들로 넘쳐 흐물흐물, 그 대학, 그리고 그 대학에 붙은 담고 있는 대학생들은 대학의 참모습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

고성찰적인 담백함에 담장이기 이기치 않은 중세의 대학원들은 아니었다. '유니버시티'라는 말이 강철의 마다에서 울려 나오는 비로소 대학이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학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 너무나 동떨어진 대학의 상이하고 혹자는 너무 먼지 모른다.

그러나 대학본연의 기능은 학문의 연구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음은 '유니버시티'라는 말을 읽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대학 본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이 현실사회와 동떨어진 것이라 고 하여 이것은 이론의 존재 가치와 부정해 버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예리한 판단력과 냉철한 자세로 분석하고 해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 즉 판단력 재배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라 다를바가 없다. 급박한 현실이 우리 앞에 던져주는 수 많은 난제들을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 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이와같은 현실이 고 기저에 어떤 집단이나 요인들이 작용하였고, 또 이러한 집단이나 요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는가를 하나씩 풀이해 나가고, 마치 미궁을 헤쳐나가기와 같이 조신하게 한 이야기로 분석하고 나가는 것이 학문의 본래 역할이 아니었던가?

현실을 예민 그대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거나, 물론 기본적으로 현실의 일부를 마치 현실의 전부인양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에서 이론을 익히고, 그렇게 해서 현실을 재해석해보는 예리한 비판력을 기를수가 있는 것이다.

시골 우물가에서 재깍거리는 아낙네들이 현실을 보는 눈과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젊은이들이 현실을 대하는 눈은 결코 동일시 될 수 없기에 때때로 대학은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을 정면부 정면부까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비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눈앞에 다친 현실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평지에 두발을 딛고 서있는 우리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엄연한 사실을 잠시나마 망각하듯이, 현실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 속체제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된다. 그리하여 현실을 보다 분명하게 조망해 볼 수 있는 '이론'이라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인간은 이론, 즉 '이론'을 일깨워 주 는 것이 태연한 것이다. 그러나 참다운 '이론'이란 지식의 습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습득된 지식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실제로 체험함으로써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 또는 이론의 전달자가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이 한사람의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길잡이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의 강의는 단순한 이론의 수주에서 그 의미를 갖기보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하면 젊은이들이 우리들이 하는 내일을 연구이 나간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참다운 '이론'이란 젊은이들의 감동과 불꽃이 떠오르는 참다운 '삶'에 대한 젊은이들의 감동과 불꽃을 재현하지 못하는 대학은 이미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정돈되고, 완결한 대학캠퍼스, 그리고 연구실이 붙어 있지 않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흡산의 소리

세상은 넓고 할일도 많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사는 세상을 보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겨우내 풍풍 폭이 두었던 답답한 가슴을 여기에 풀어 놓읍시다. 흡산의 소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대화 평장입니다.

2백여 원고지 2~7매의 글로 아니냐 독자만평과 독자자전으로 '흡산의 소리'대화평장에 참여하십시오. 매주 금요일까지 학생회 관 2층 학생기자실로 원고를 가지고 오시면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결속되는
총학생회를 바라며

지금 우리 이문동에서는 동학금 무렵이 한창이다. 도서관 앞에서 소리를 높여 학우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아들을 볼 때면 작곡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오늘날 또 다른 모습의 학우들을 발견했다. 아예 문 앞에서 선진하면서 유언들을 나열할 때 받았던 유언들은 분명 동학금 무렵의 한 방면으로서 동학금을 총학생회 개교로 납부하는 내용의 호소가 있었다. 그리하여 내 놓았고 학교로, 열려진 창구로 동학금을 납부하는 학우들을 본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해 느꼈던 솔직한 감정은 실망감과 함께 무뎠음이었다. 흥분도 덜 되어서이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총학생회 개교 납부를 위한 학교로 납부하는 것은 동학금 무렵을 이르는 총학생회 사업 때문일까?

그간의 총학생회 사업이 모든 학우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음과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부끄러움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그해 느꼈던 솔직한 감정은 실망감과 함께 무뎠음이었다. 흥분도 덜 되어서이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총학생회 개교 납부를 위한 학교로 납부하는 것은 동학금 무렵을 이르는 총학생회 사업 때문일까?

독자만평

날치기 11단
슈퍼피프스 6단
외어치기 5단
사기 17단

폴리앗과 다투

(서화·독자 조준연)

동투, 함께 쌓는 탑입니다

-교수님께 드리는 글-

지난 18일(수) "학생들에게 고한 다"라는 외대 교수님 일문 명의의 유언장을 보며, 저희 학생들은 매우 큰 충격과 실의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저희들은 스스로 학원의 주인인 권리를 찾기 위해 애써는 다른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독단과 전횡을 일삼으며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동학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는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인내와 이해를 전제로 한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저희들의 행동에 마땅한 지지와 지원을 마다하지 않으셨아 할 교수님께서도 어느 일방의 의견에만 편을 두셔서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 동학금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 학생간의 마찰이 증폭되고 있는 지금 어느때보다도 원칙적이고 공평정당한 입장에서 진실과 허리를 가져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저희들은 교수님께 감히 몇 말을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혹 예외에 어긋나고 도리어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위와 생각의 시비라도 하해와 같은 너그러움 용서와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동학금 문제가 조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들은 동학금 인상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사용 내역과 인상근거에 대해 이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동학금 증액에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동학금에 인상근거 없이 결정되었음, 그 인상근거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집니다. 또한, 학내 교육환경 개선은 단적으로 미룬 채 진행되는 일

무쌍한 것이라면, 교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교수님 / 저희는 외대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저희는 외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행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 입니다.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무쌍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정당한 대학의 권리와 위신을 실추시켰단 말입니까? 외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정당한 주장과 항의에 피로한 이 강학의 행위는 아주 미흡한 것이지만, 하지만 결코 학교를 망친 것이나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4항에 "학교는 학교법정과 학생복지를 위해 기꺼움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라고 촉구하신데 대하여 몇가지 우려가 됩니다.

물론, 현재 창설된 제반 복지시설이나 교육여건, 교풍문예 등에 관한 비합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학생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태도를 갖지 않았을지라도 혹은 학생들과 학생회측의 분열을 유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수도 있다고 느껴진다 면 기우일진까요?

교수님 / 저희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결코 합당한 대학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동학금 없이도 발전적 대외와 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 는 법인데 학교측은 합상의 정에 나설 마음이 없는 것은 모자라서 이를 어떠한 중대한 말입니까?

교수님 / 전정 외대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신다면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동학·아랍2 일회소)

컨닝으로 최학점을 유지하던 민자가 개정된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를 4학기 받고는 제적되었다

-민중대학 학생서-

오늘 드디어 청원원이 허무와
인간의 사슬을 끊고 일어난 날이
있다.

일정 방방이는 민자를 켜졌다
다. 발도 안된다 / 흥 / -민중-

무표고는, 참으로 꼭 라인해
바이요.

이벤트 몇번이 정답이?
-오수생-
3월24일은 3·2·4전염으로 /
기호 3, 2, 4번은 쪽지 1번은 쪽
지 말다 -E20-

사랑하자. 이기자. 무표하자.
-홍-
아직 쓰이지 않은 대선이 있으
나... -태우-

애구, 딱했다
-X자강-

참 / 나 무표용지에 빌렸
다! -NS9-
에-에- 국민원원과 나라만
아름답고로 민자에 사행을 구형
함 -판사-
야 / 너 오늘 죽었다. 무표로
손바주었다 -보노한 민중이-

이게 뭘 먹이냐?
-아부지리로 당선된 무소속-
야호 / 부자 됐다. 민주국가
건설 없이 일이요! -
-영생선실업자-
민주 정부 /
틀거린 해드 배부르다
한 바퀴도 배부르다 -
-동맹이-

주제: 3월24일 '민중'의 일기

및과 품위로 선택하는 -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쥘로 개최되는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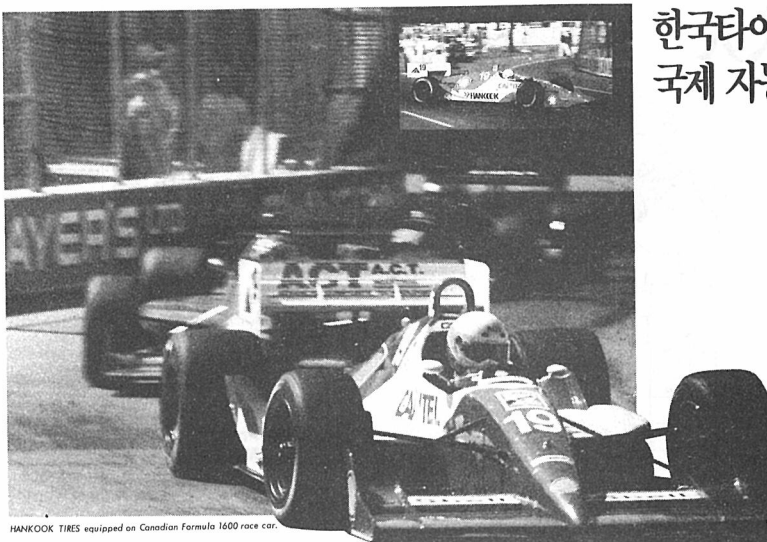
바로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HANKOOK Endurance Championship이 그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Westwood Motor Sports Park - 매던 그곳에서
「한국 인듀어런스 챔피언십」이 개최됩니다. 이 대회에서 세계의 유명 레이서들은 입을
모아 한국타이어의 탁월한 품질에 격찬을 보냈습니다. 또한 캐나다 포뮬러 1600
(Formula 1600) 레이서에서는 한국타이어를 장착하고 달린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어를 장착하고 출전한 자동차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최고 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스피드와 스티어 넘치는 자동차 경주대회는 세계의 자동차와 타이어 성능의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도 그 기술력과 품질을 세계에 널리 퍼뜨리고 새로운
타이어 성능을 연구 비교, 테스트하는 방법의 하나로 세계의 각종 자동차 경주대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 타이어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며 품질과 성능의 우수성으로 앞서가는
한국 타이어 - 저구촌을 누비는 한국인의 자부심입니다.

한국타이어
TIRE



HANKOOK TIRES equipped on Canadian Formula 1600 race car.

미국의 제3세계 패권전략



박은홍

(한국사회연구소연구원)

파나마 침공과 이라크 침공

43일 전미 6백억 달러, 다국적군 사망 299명, 미군 사상 10만명, 미군 사상 14만2천명, 이라크 물적 피해 총 2천억 달러, 환경 파괴 7천3백억 달러, 이라크와 미국의 신세계 전략의 상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질서' 전략의 첫 실패였다고 할 수 있는 지난 해 패권 전쟁에서의 인적 물적 피해의 개략적인 수치이다.

이러한 신세계질서라는 전략은 이라크를 장악한 미국의 군사적 침공으로 제3세계 반미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가능할 수 있다는 미국의 '외적'의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 냉전이라는 '혁명적'인 국제 질서의 제3세계 패권에서 발생한 패권전쟁은 제3세계를 위협하는 모



이 지역 중동지역에 개입한 미국의 명분은 이라크가 '무법자' 이라크를 응징할 수 있는 '정의의 십자군'의 사도'라는 바로 미국 다국적기업이라는 '소명'의식에서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무법자의 행위'로 간주되면서 국제법적으로부터 미국의 침공이 정당화되었던 미국의 파나마 침공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포장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이중기준이아말로 자유와 평화의 사도라고 자칭하는 미국의 패권적 본질을 보여준 것은 예외였다. 1965년 도미니카 침공, 1973년 칠레 아옌데 정권의 침공, 80년대에 들어와서 있었던 그레나다 침공, 리비아 침공, 니카

라에 대한 저강도전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감성적인 결론은 미국이 행사하는 군사적 개입은 패권적 제3세계지역에 미국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유도하는 조건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이 미약하거나 전무할 때 행해진다.

「제2의 악마의 얼굴」을 겨냥한 미 패권전략

그러나 '악마의 얼굴'을 겨냥한 미국의 국제질서는 제3세계의 도정에 있다. 이른바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그리고 일본의 부상을 이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주된 변수로 대목으로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대국 간 역학의 변화는 부시정권이 창당한 신세계질서 구성 속에 '공명', '개방', '민주화', '신자유주의' 등의 용어가 구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시 스스로가 파스 아메리카나의 구호를 대신하여 '세

계 모두에 의한 평화'를 제창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물론 제2차대전 이후 마셜 플랜을 시작으로 해서 안전보장(NATO)과 경제(GATT, IMF, NATO)를 양축으로 하면서 미 패권을 극적으로 부양했던 시기에 미국이 정치외교적으로 주도해왔던 '세계정권'의 개념과 단련과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신세계전략은 패권 전쟁에서의 군사적 침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방적인 경제적 약화 상태에 놓여 있다. 1965년 도미니카 침공, 1973년 칠레 아옌데 정권의 침공, 80년대에 들어와서 있었던 그레나다 침공, 리비아 침공, 니카

햇 클

■출주는 언론, 비틀대는 선거(강준만 지음)

오늘날의 선거는 이미 '산악화'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언론이 패권자가 될 운은 더욱 커졌다.

이해에서 필자는 전반적으로 선거 거리의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앞선 미국의 경험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하지만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우리실정에 맞게 여러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아침퍼낸, 4천2백원)

■어떻게 살 것인가 (안재구 지음)

사람은 과학적 세계관에 설교로써 세상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발전의 논리를 환히 바라볼 수 있다.

이론은 청년들의 인생관을 확립하는데 과학적 인생관을 갖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과학적 인생관의 입장에서 개인과 사회관계의 문제, 인생의 이상과 가치, 그리고 행위의 지침, 실천의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이에 대한 탐구활동이아말로 세계를 개조·변혁하는 변혁운동이기 때문이다.

(도서 새날퍼낸, 4천원)

■제3기 생태학교

이년에 개최되는 생태학교는 잘

수술 심화되어 가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찾아내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생활양식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한국문화유산의 위기와 인류의 미래

▲일시-3월27일부터 매주 화-금 오후7시30분

▲장소-중앙대학교교육원

▲참가비-2만5천원

▲문의-한국문화유산교육원(765-6324)

1. 3월27일(화): 지구생태계의 위기와 인류의 미래(관속표: 환경문제 연구소장)

2. 3월31일(토): 생명의 쓰레기, 오염된 땅(관속표: 한국문화유산교육원)

3. 4월 3일(일): 대기·수질오염의 실태와 해결방안(관속표: 환경문제 연구소장)

4. 4월 5일(일): 공해해제기술

찾아서(한정규)

5. 4월 7일(화): 핵발전소, 무엇이 문제인가(관속표: 한국문화유산교육원)

6. 4월19일(일): 우리의 식탁에 과연 안전한가(아성관: 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 상무이사)

7. 4월14일(화): 환경운동의 현황과 과제(최일: 공해추방운동연합의장)

8. 4월17일(일): 현대과학의 생명인식과 새로운 가치(이민: 장희석,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9. 4월21일(토): 생태주의의 윤리와 방법(관속표: 생태문제연구소)

10. 4월25일(토-일): 생명과 문화와 참된 삶(관속표: 한국문화유산교육원)

11. 4월28일(화): 생명공동체의 모색과 실천(서해관: 여성민주주의회)

12. 5월 1일(일): 새로운 문명과 올바른 생활양식(관속표: 토론)

시민포럼

·소금상자·

시민포럼이란,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기관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적 압력을 창출해내려는 지역시민운동을 뜻하는 용어이다.

문헌자료, 특히 5·16 쿠데타 이후 가속화된 서울의 집중화 현상에서 이러한 시민운동은 침체되고, 그결과 지역 주민의 실태와 해결방안(관속표: 환경문제 연구소장)

30여년간 지속되어 우리사회의 지역차별을 심화한 수준이다.

그런데 요사이 14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등에서는 시민포럼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정치참여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차별을 심화할 수 있는 사태를 이룬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

사회주의와 민주화 운동

“사회주의를 향한 진정한 대안은 ...”

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필자는 스탈린과 레닌의 정체를 비교하는 수단을 쓰고 있다. 먼저, 루카치는 레닌에 대해 사회주의를 리시자 혁명의 고전적 성격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이후의 필연적인 현상을 설명해 내고 있다. 그리고 나서 레닌에 의해 실행된 신경제정책, 관료주의의 해체 등에 관해 언급하는 등, 국가 스탈린과 스탈린의 문제, 핵심으로서 사회주의의 민주화를 찾아낸다. 이와같은 대략적인 고찰 후에 루카치는 레닌이 스탈린과 레닌에게서 어떠한 것도 진정한 자기정의로 동화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 결과로서 레닌의 사상은 사회주의를 위한 한계한 처방을 내놓을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다음으로, 루카치는 레닌이 자신의 반대파를 죽이고 지도권을 장악하는 스탈린에 대해 한계해하고 있다. 동시대의 지도자로서 공산주의 이론가로서 가장 뛰어난 전파가 있던 스탈린은 전파의 가장 중요한 실천태도인 당·국가 대내외를 지키기 위한 집중적이었다. 이로써 루카치 사회주의의 평의와 스탈린을 해체시키면 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모든 결론은 레닌주의의 민주주의와 일치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의 한 원인으로 레닌주의에 있어 스탈

“사회주의와 민주화운동”의 저자인 루카치의 삶은 레닌의 공산당 점령시기와 스탈린의 공산주의 일당독재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각 상황에 맞서 그는 사회주의의 국가에서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였고 이 책은 그 결과물이자 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루카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의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주된 내용은 ‘사회주의를 향한 진정한 대안은 스탈린주의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의 민주주의인가’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요약 될 수 있

신세계 질서, 반미국가에 대한 제압 소련 해체 이후 미, 패권전략 이전

범적인 시대가 되고도 중반부터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미국의 파나마 침공은 동서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는 미소냉전의 종결을 이끌었다. 12월30일이었다. 이이 파나마에서는 반미국가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가 장군이 출몰하고 노리가 장군의 명령이 전미 보수파인 집권파로써 미군을 수반으로 하는 신 정권이 출범되었다. 미국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정치는 즉각적으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외적'대미의 및 마누엘 안토니오의 종파를 대변하였다. 미국의 파나마 침공은 이제 세계의 대립구도가 대미 대소련에서 미국대 반미제3세계국가로 전향된 지점을 시사해주는 정치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악마의 얼굴'을 겨냥한 미국의 국제질서는 제3세계의 도정에 있다. 이른바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그리고 일본의 부상을 이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주된 변수로 대목으로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대국 간 역학의 변화는 부시정권이 창당한 신세계질서 구성 속에 '공명', '개방', '민주화', '신자유주의' 등의 용어가 구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시 스스로가 파스 아메리카나의 구호를 대신하여 '세

있는 양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패권전쟁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통제력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보다 강화되고 있다.

패권전쟁에서 미국은 핵을 통한 위협없이 첨단장비를 갖춘 최첨단 군사 전력으로도 신속하게 제3세계를 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있었던 부시정권의 핵 공격 선전 자체나 새로운 형태의 전략방위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요르시아인 방어체제(GPALS)의 구축 시도 역시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에게 대항하는 제3세계 지역대국에 대한 경고성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공화당 선의 반미의 지역대국을 겨냥한 정치외교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악마의 얼굴'로 알려진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기존 중동지역의 패권을 강화, 지역분쟁지역으로 전향시킨 것이다. 지역분쟁 대체 전략의 핵심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기감축과 통제 △

원의 붕괴에 따라 소련의 핵기술 핵무장 등이 제3세계 '독재자'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라크의 주재인, 리비아의 카다피, 북한의 김일성 등이 그 대상자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무부는 북한, 쿠바,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등 6개국을 테러지원국가로 분류하였다.

미국의 신세계전략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미국의 최후의 경제현실, 독일의 경제적 위기에 걸맞은 정치외교적 지원, 미국의 제3세계의 지위 강화 등을 위하여 제3세계 반미국가들을 '제2의 악마'로 만들어 이들에 대한 경제제재와 공세, 나아가 군사적 공격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소련전쟁의 '남'에 대한 중동지역의 패권전략의 이점을 의미한다. 제2의 악마전략을 구축, 정치외교적 해체모드를 기반으로 다시금 경제적 해체를 가속화하겠다는 미국의 포스트냉전형 패권전략인 것이다.

“사회주의와 민주화운동”의 저자인 루카치의 삶은 레닌의 공산당 점령시기와 스탈린의 공산주의 일당독재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각 상황에 맞서 그는 사회주의의 국가에서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였고 이 책은 그 결과물이자 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루카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의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주된 내용은 ‘사회주의를 향한 진정한 대안은 스탈린주의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의 민주주의인가’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요약 될 수 있

'92년 재학생과정 모집요항

- 모집학과 및 인원

학과	과정	인원
영 어	초 급 · 중 급	각 반 25명 내외
일 본 어	초 급 · 중 급	

*영어 초·중급: 일상생활의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영어회화 능력의 배양
*일본어 초 급: 기본문법 및 강독의 철저학습에 중점을 둔 중 급: 문장력과 회화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
- 교육기간

제10기: 1992. 4. 27(월) - 7. 3(금) (10주)
제11기: 1992. 8. 3(월) - 10. 9(금) (10주)
제12기: 1992. 10. 12(월) - 12. 18(금) (10주)
- 교육시간: 주 4일(월, 화, 목, 금요일), 1일 2시간(19:30~21:20)
- 지원자격: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지방학과 외국어 비전공자(단, 영어, 일어 비전공자는 수강가능)
- 선발방법: 등록금 마감
- 수강료: 120,000원 일시납
- 제10기 등록기간 및 장소: 1992. 3.30(일)부터 교학과
- 기 타
 - 본 교육은 학부 재학생의 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시년 4회 실시함.
 - 교과는 등록금마감 후 우편안내에 따라 개별 구입하여야 함.
 -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개설되지 않을수도 있음.

*문의전화: 외국어연수원 교학과, 961~4174, 4175

1992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연수원

공 고

제목: 아르바이트 지원서 접수

1992학년도 제1학기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사회 경험 및 학비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 아 래 —

- 접수기간: 1992. 3. 2~3. 31까지
- 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학생처 취업보도대
- 대상: 전학년
-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추천 우선권이 부여됨.

1992년 3월 2일

학 생 처

알 림

'91학년도에 이어 '92학년도에도 교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론캠퍼스에서 학생순찰대인 「외대사랑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캠퍼스내의 무질서와 외부인에 의한 폭력, 파괴행위를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외대사랑순찰대」에 대하여 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내에서의 음주, 고성방가하는 행위 금지
 - 각종폭력, 파괴행위 금지
 - 나뭇가지 등으로 모욕물을 퍼주는 행위 금지
 - 교정에서의 운전연습 및 불법주차 행위 금지
 - 외부인의 야간 출입통제를 위한 학생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협조

1992년 3월

외 대 사 랑 순 찰 대

그림돌보기-외대인의 총선에 대한 관심도 설문조사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시겠습니까?

투표하겠다는: 1백80명 (87.37%)



내일 3월 24일(화)은 모두가 알다시피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이다. 온국민이 민주의 열망으로 선거운동과 각종 선전 움직임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외대인들의 현시기가 주요 관심사로 바로 이 총선에서 크게 빛나지 못할 것이다. 본보에서는 이번 14대 총선을 계기로 하여 외대인의 정치의 관심과 참여도를 파악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장 먼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응답자의 87.37%에 해당하는 1백80명이 투표권 행사의 의사를 밝혀 정치적 의무주기와 비판의 냉소주의에 짓기 보다는 내 한 표라도 깨끗하게 행사하여 올바른 정치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기대가 전방위적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의 전 계층을 동원해 가장 민주화를 열망하고 진보적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이 그런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무려한 행사의 열광에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기회를 우리는 날치기 등과 동 구세사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었다.

서울과 용인캠퍼스를 구분하고 수도권 거주 학생과 지방 출신의 유학생을 구분하여 비교했음에

본 추측에 의한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캠퍼스의 수도권 거주 학생은 95.4%나 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서울캠퍼스 학생이 지방출신의 학생은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투표권을 포기하는 12.62%의 응답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또는 부패와 신교 기간을 놓치는 등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출마하였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수도권 거주 학생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치로는 41.66%가 후보 출마자의 성향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에 전혀 모른다고 답한 외대인도 8.33%를 차지했다. 즉 이번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속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후보들의 성향은 어떤 경로로 통해 파악하는가하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선거운동 기간에 뿌리지는 캠프 등의 유인물 내용을, 그리고 소속정당의 성향을 그대로 후보의 성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질문 1.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시겠습니까?
·수도권 거주 통학생 1백56명
투표하겠다는:1백42명(91.02%)
투표하지 않겠다:14명(8.92%)
·지방 출신 학생 50명
투표하겠다는 투표:24명(48.00%)
·지역 취향하여 투표:14명(28.00%)
투표하지 않겠다:12명(24.00%)

질문 2. 몇 문항에서 '투표하지 않겠다'에 답하였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주관식이므로 개개 불가)
질문 3. 자신이 속한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출마하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투표성향들을 잘 알고 있다:71명(34.47%)
·대강은 알고 있다:1백6명(46.60%)
·전혀 모른다:29명(14.08%)

질문 4. 후보 출마자의 성향은 주로 어떤 경로로 파악하십니까?
·선거운동원들의 태도:13명(5.80%)
·유세장에서 후보의 연설을 듣고:12명(5.35%)
·캠프 등의 유인물을 읽고:1백3명(45.98%)
·소속정당의 성향 그대로:62명(27.67%)
·기타:34명(15.17%)

질문 5.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후보자의 인품과 경력:94명(42.92%)
·학연·지연·혈연:8명(3.65%)
·공약사항:23명(10.50%)
·기타:17명(7.76%)

질문 6.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금품, 향음제금 등의 부정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면 그 내용을 서술하십시오.
질문 7. 14대 총선 이후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을 어떤 것이겠습니까?(주관식이므로 개개 불가)
설문조사 대상:본교생 2백 6명
조사 장소: 서울시·용인 캠퍼스 3월 20일(금)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외대인들은 자신의 표를 던지고자하는 후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우선시하는가를 질문하였다.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두는 기준은 후보자의 인품과 경력(42.92%), 소속 정당(33.33%)으로 드러났다. 현재 내세우는 비선형적 공약에 솔깃하기 보다는 지난 정치생활에서의 신뢰를 가져다주는 경력을 우선시 함은 지금 우리의 국회는 일관성 있고 양심을 지키는 국회의원에게 매우 목말라하고 있음을 한 단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품, 향음제금 등의 부정 선거운동 사례로 다양한 경우들이 제시되었는데 정치권 내부의 불투명한 공무로부터 전이부패의 전화를 받고, 공직모임을 가강한 단 채관청, 청소와 겹쳐 많은 위선적

인 친절공제, 회식, 통반장의 압력, 선관위에서 발송한 부패에 여당 홍보물의 삽입 등으로 공명선거라는 그 슬한 외침을 단번에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들이 아직도 우리 가까에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새삼 일 깨워 준다.

이제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 마지막 주권의 문합에 수도 없이 회회한 여소야대의 국과, 보수당에서 빛나던 참언한 민중투표를 세우는 국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지난 자신의 표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달려있다. 승리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를 달성시키고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을 직접 다져야 할 것이다.

<이종미 기자>

명수당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가

14대 총선을 하루 남겨 놓고 선거전의 향상은 어느 총선과는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논쟁이 새로운 경향이 만들어진 뒤에 그 당이 지방으로 부터 집권 중앙으로 몸을 타고 북상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다. 기존 보수 정당의 대권 야망에서 기존 정당들과 신당들과 무소속의 한 판 싸움으로 변화한 것이 아마 이번 총선의 특징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현존 거대 여당과 전국의 신생 정당 사이의 불투명은 난무국으로 똥 뭉은 개와 거 똥은 개가 서로 힘 쫓는 것이다. 한 쪽에서는 대의 전사로 전경된 단체들을 내세우고 다른 한 쪽에서는 개별 기업체들을 앞세워 자장을 통한 경쟁이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 소위 제1야당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 부처리를 노려 지역당의 구태의연한 작태를 보이면서 부당과 무책임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오려이다. 해 총선 때마다 물에 빠진 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듯이 국민들은 행여나 하고 기대를 걸어 보지만 그들은 여당의 불리 역할을 해주는 정도에 그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는가하는 동경이런 눈길로 보내고 있으나 한심스런 이들에게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에 말한 돈을 주거나 만기나한 사람에게 주고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줄 돈이 있으면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 산업 경쟁의 시대에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환원시켜 그들의 사기를 돋우어 국제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역군이 되게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받았으니까 그 기업인 한 사람에게서



14대 총선은 '정치부채'를 말끔히 씻어내는 계기로

이 상 준
(영어과 교수)

쳐 왔다. 당시 기사들은—요즘은 정치도 없지나—그때도 정치란 말이 나오면 야당을 놓고서 “그놈들이 국회를 오려라 한 술 더 뜨는 놈들이 아니겠어요”라며 체면의 손길로 윤전대를 짚는 것이었다.

“정치 부채”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실감나게, 앞으로 해먹으로 드는 것들보다는 이미 근로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배가 불러 더 이상 그렇게 많이 해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앞에 말했듯이 이 나라 공직의 기업가가 청결한 새정당이 날로 인기 아닌 인기를 끌고 있는 지 모른다. 게다가 오죽 당황하면 스스로 돈 가지고 “정치”를

아니겠는가. 그 돈은 천문학적인 수치의 액수가 될 것이므로 그 돈을 정당으로 이러한 이웃 사람들에게 정당한 절차를 밟아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기존 정당인 신정당도 “정치 부채”라는 말을 이 사회에서 깔끔히 세척하여 없애게를 바란다.

그런데 어떤지 지금 들어가는 프락치나를 보면 방종에서 들린 최동길의 ‘이게 뭘까?’라는 말이 이 곳에서 뱀뱀다가 절로 나의 입으로 흘러 나오고 있음을 익히 할 수가 없구나/ 나의 깨끗한 한 표가 깨끗 불라하고 있음은 나 만이 갖는 심정이 아님을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는가?

다른 대학에선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는 학교 인권위의 학생들의 발원된 학보와 생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원적 자부감과주권원회 산하에 학생행위의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한양대 학생들은 지난 3월11일(수)과 18일(수), 두번의 모임으로 학생생활간의 토론을 진행하였고, 학교 주변의 학생생활이 담합해 학비를 세하기 들어 4만원의 일괄 인상한데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학생행위의 건설에 대한 제

안은 학생생활 환경의 아무런 건적 변화없이 무조건적으로 학원이 인상된 사실을 개별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던 중 몇몇 학생이 대외부를 통해 담합한 실정을 토로한 것을 발단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현재 학생행위의 건설의 중심인 학자주 주체는 이 사업을 아래로 부터의 기층에 근거한 사업으로 진행하며 노력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진적인 개혁들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교적으로 홍보와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생행위의 건설이 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움직임들

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에 그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문화권이라고도 얘기되는 학생들의 생활 문화의 개선에까지 영향력을 갖게된다.

학자주는 현재 여운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의 학비비 인상이 타당한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학생뿐 아니라 학교 인근지역 동·반장과 학생들 유인물도 그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국제 교육원생 모집안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 감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 대학은 이에 부응하고자 1990년에 국제교육원을 설립하고 매년 여름 방학기간중에 외국의 한국어 학자들과 해외 교포들을 대상으로 국제 하계대학을 개설하고 있으며 1992학년도 아래 주요 일정계획을 참조하시어 해외친지 및 교포 중 입학 할만한 대상자가 있으면 본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간:1992년 7월6일~8월7일(5주간)
2. 대상:외국인 한국학자 및 해외교포
3. 위치: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4. 하계대학 일정표

5월 30일		원서 접수마감
7월 6일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7월 7일		개강
7월 17일~19일(2박3일)		수학여행
8월 5일		종강
8월 6일		졸업시험
8월 7일		졸업식

*주말에는 사내관 및 유적지 탐방(비용은 수업료에 포함 되어있음)

5. 교육내용
 - 1) 한국어(초급, 중급, 고급):3학점
 - 2) 한국학:2학점
 - 3) 한국문학
 - 4) 한국역사
 - 5) 한국사회와 문화
 - 6) 한국정치와 경제

6. 원서교부과 접수
 - 1) 본 국제하계대학의 신청자격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로서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한다.
 - 2) 신청 원서는 안내책자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한다.
 - 3) 사진은 4x5cm의 크기로 한다.
 - 4) 원서접수 마감일은 5월30일이며 접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한다.
7. 결비: \$1,725
8. 1992학년도 국제하계학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는 안내책자와 포스터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 연락처:(0335)33-1714, 30-4131/2

1992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공안선거·관권선거를 고발한다



14대 총선이 불과 하루앞으로 다가오자 각 정당에서는 막바지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본로 용인캠퍼스 '선거지원단'에서 범민주후보 지지를 위한 선전전을 전개하던 중 상대편 시장당에서 경찰이 총을 쏘아대며 '용인상남지구 총학생회 연합' 소속 대학생 24명을 불법 연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집권 '민자당'에서 소위 열혈정치공작단이라 일컬어지는 선거 기간을 최대한 공안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종한 선거를 치르려했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금)에는 강성모(민자당 서대문갑 위원장) 선거운동본부에 금품제공여부를 취재하러던 기자를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어 다음날인 15일(토)에도 '민자당' 후보 운동원 50여명이 회계종이인 기자와 무소속 박순복 후보 운동원인 대학생 20명(본로 학생 15명 포함)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부산 동래에서 터져나왔다.

인천 서구구당에서 '민중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황선진 후보의 경우는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민자당, 대학생에 일당주고 대규모로 집회 동원 범민주 후보지지 학생 불법연행하는등 공안선거바람 불어

14대 총선이 불과 하루앞으로 다가오면서 거점당·후보들은 막바지 선거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민중당'을 비롯해 범민주 후보를 지지하는 민중민주운동(이하 민중민주)연맹은 총선 3일 전부터 대중투쟁 총화의 기간으로 잡고 집중적인 가두 선전 및 대중연행 등을 통해 '민주후보지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기간의 민자당의 부정부패와 공안선거사태를 정리하면서 총선을 하루앞둔 청년학생들에게 올바른 투표행태를 호소하고자 한다. (편집자)

생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수천 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을 선거 운동원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인천 북구을의 이승우(민자당) 후보의 경우는 인근 주민의 개성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대대적으로 선거유세장에 동원하는 일파에 지목되고 있다.

'민자당'은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와 같은 정부기관을 이용해 계속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장, 동·반장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아전전주를 동원해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초 전라북도 무주경찰서가 총선과 관련한 보고서로 작성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충청권에서는 '14대 총선관련 동향'이라고 하는 대외보문서가 발견됐으며 이것은 명백한 공안선거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황선진 후보는 지난 89년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서 후보출마직전에 문제가 있어

민자당의 관권선거 실태

집권 '민자당'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금권·관권선거를 노골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최근 세로로 문제가 되고있는 '학병제'는 '민자당' 중추인 청년층에서 정치권력에 호소하는 '학병제'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선거운동에 불발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대학



동굴에서 고기나라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 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서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상환방법

구분	상환기간	상환방법
단기학자금	대출후 1년 이내	0개월소정 납입기간에 대출원금의 균등분할액과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입
장기	85.8.1 이전대출자	원금:기차기간(제학기간) 경과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기차기간중에는 대출후 매3개월, 원금상환기간중에는 매월 납입
	85.8.1~89.12.21 대출자	원금:기차기간(제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기차기간중에는 대출후 매월 납입
	89.12.22 이후대출자	원금:기차기간(제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기차기간중에는 매월, 매3개월 또는 매6개월단위로 납입 ·원금분할상환기간중에는 매월단위로 납입

주) 장기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으로 군복무예정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대출금 기한 연기절차를 취하여서 군복무기간만큼 기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후 군복무 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 하여야 합니다.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은행으로서의 제때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정지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시민대중이 알뜰히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것을 심심 감안 하셔서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범국민적 투표참여와 공명선거로 올바른 주권 행사하자!

범국민 투표참여를 위한 9백인 선언



범국민 투표참여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국민여러분! 이제 14대 국회의원총선거 투표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행사의 장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가 되어야 하며,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14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3당합당이나 경제, 정치적으로 변화된 현실에 맞는 국민들의 총체적인 의사표현의 개기입니다. 또한 남치기 국과, 파벌 국회의원 지탄이 일고 있는 13대 국회의원들의 보수를 앞으로는 그대로 계속 시키느냐, 아니면 국민들의 행복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획하는 민주주의를 만드느냐가 가려지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 기초, 광역의원 선거의 과정과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국민들 속에, 특히 나라의 장리를 맡고 있는 정치인들이 정권교체 속에 정치불신과 냉소주의가 만연하여 주권행사자 체를 회의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국민들의 진정한 참여와 지지 속에 정치의 행나기가 보다는 국민들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내내에게도 아함과 기만을 일삼거나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남치기로 통과시키고, 국가의 번영과 국민들의 삶의 향상에 대해서는 뒷날로 미루어 놓은 채 대권싸움에만 눈이 멀어 있는 오늘의 정치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를 정치화하는 군소정당의 난립, 지역감정에 편승하여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 용지자한 정치인들의 행태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비록 일부 불지각한 정치인들과 오늘날의 정치현실이 우리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다 하여 우리가 무관심과 냉소에 빠져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무관심과 냉소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정치는 더욱 더 파탄으로 치닫해 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20~30대의 청년세대와 여성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무관심과 냉소가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더러워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이 아니면 자신의 선택이라도 적극적인 의사표현 속에 국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민주사회, 민생안정, 조국과 평화의 풍경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여 조국의 미래를 여러분의 힘으로 창조해 나가십시오. 아울러 금권, 관권, 타락,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지역감정에 편승하여 사리사욕을 채워서는 후보와 당에 대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병입한 심판을 내리십시오.

(정리:사취부)

(권동순 기자)

지난 3월 20일 (금) 2시10분경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인 (경희 3층)에서 경희대총학생회장(경희TV)·대학후보사 등 각 언론사 기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내외 학계 사안이 기자회견의 주제는 대는 14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학생의 공명선거운동을 폭력으로 전향하는 것도 모자라 학내에서 프락치를 파견하는 현행의 부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19일 오후6시경 경기도 용인군 시흥읍 신리리 신강초등학교에서 공명선거 거버넌스를 벌인 경희대 학생 40여명을 경찰이 무차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 대학 부총학생회장 이상일(원자핵공과)이 경찰의 휘두른 방패에 뒷머리를 맞아 '...' 이마에서 꿰뚫는 등 1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상일군 등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경 교내

체육학관 앞 광장에서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학생회 출범식을 마치고 신강초교 교내에 있는 선거철이 호소문과 공명선거 촉구 유언을 5백여 장을 나누어주던 중이었다. 한편 이날밤 2백여 학생들은 교내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대한 불복행위에 대한 용인시청 사법회 평화위원회 등을 요구하며 밤샘

대회를 열었다. 그리고는 20일 오전 11시경 총학생회관에 댄스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은 학생이며 "강경집행 1주기 규탄집회에 참석을 요청한다." "강경집행과 동문서답" 등 최심수비들이 자신을 소개하다가 강경대응의 위급한 가운데 자신이 프락치임을 밝혔다. 주만동학사의 본명은 김진성(21. 무역과)으로 3월 21일 상남 캠퍼스 앞에서 소액치기를 잡아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통해 알려진 경향은 "경희대에 불법선거운동의 조짐이 보인다" 정보를 캐냈다고 하면서 오만 원을 주었다고 했다. 그는 "차음에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단호한 면 모를 잘 감지해서 제압했다고 해서 하게 되었다"고 체포된 뒤인 말했다. 또한 그는 시위 관련 자료(시위연락처 등)인원, 회원명

단으로 구성된다는 학내에

과파하는 것과 학교내에

에 집회하여 프락치들이

침이 복적이었으며 설

배할때는 생방송을 위

대로 올렸다는 학내

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

학생회장 최민석(응시생원 입시 의

장)씨는 "이번 사건은 청년학생들의

의 공명선거 취지에 완전히 부합

도 붙어 강경 집회는 동 문·안

복선사범의 폭로로 알려진 현행의

의 대국민 사안이 선거기간인 지금

도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상준 기자)

프락치도 한몫하는 선거

농성을 벌였다. 그러던중 20일 오전 11시경 총학생회관에 댄스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은 학생이며 "강경집행 1주기 규탄집회에 참석을 요청한다." "강경집행과 동문서답" 등 최심수비들이 자신을 소개하다가 강경대응의 위급한 가운데 자신이 프락치임을 밝혔다. 주만동학사의 본명은 김진성(21. 무역과)으로 3월 21일 상남 캠퍼스 앞에서 소액치기를 잡아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통해 알려진 경향은 "경희대에 불법선거운동의 조짐이 보인다" 정보를 캐냈다고 하면서 오만 원을 주었다고 했다. 그는 "차음에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단호한 면 모를 잘 감지해서 제압했다고 해서 하게 되었다"고 체포된 뒤인 말했다. 또한 그는 시위 관련 자료(시위연락처 등)인원, 회원명

단으로 구성된다는 학내에

과파하는 것과 학교내에

에 집회하여 프락치들이

침이 복적이었으며 설

배할때는 생방송을 위

대로 올렸다는 학내

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

학생회장 최민석(응시생원 입시 의

장)씨는 "이번 사건은 청년학생들의

의 공명선거 취지에 완전히 부합

도 붙어 강경 집회는 동 문·안

복선사범의 폭로로 알려진 현행의

의 대국민 사안이 선거기간인 지금

도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상준 기자)

국가의 햇볕 서울지역학생연합에서는 제5기 출범식을 맞아 서총련을 대표

할 얼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공모대상:서총련 진군가, 글씨도안(LOGO), 상징도안

■공모기한:1992년 4월 10일

■접 수 처:서총련사무실(경희대학교 총학생회 961-0698)

서총련의 얼굴을 찾습니다

1. 서총련 진군가

—구국의 햇볕 서총련 40만 청년학도의 넘치는 기상과 패기, 조국과 민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담은 노래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가락과 선율일 것

—단조로 전체 24마디(예:전대협 진군가)

—가사는 2절 이하로(2절일 경우 반드시 후렴구가 있을 것)

—악보와 노래를 녹음한 테이프(TAPE) 두가지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2. 글씨 도안(LOGO) —8절기 정도 크기의 종이에다 도안할 것.

3. 상징 도안

—서총련 40만 학도의 넘치는 기상과 패기, 조국과 민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것

—가로:세로 비율은 3:2정도로

—색상은 3도이하로(접수시 색상번호나 색상지를 첨부 할 것)

—8절 정도 크기의 종이에다 도안할 것.

국가의 햇볕 서총련
서울지역학생연합

